

리포트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지희*

1.

글쓰기교실이 문을 열고 학생들의 리포트를 상담하기 시작한 지 두 학기가 지났다. 그동안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들고 이곳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자발적으로 찾은 경우이건 담당 교수의 권유에 의한 상담이건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서 글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한번 쓴 리포트는 제출하고 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고 학년이 높아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만, 글은 그저 자신이 알아서 써야 한다는 생각 탓에 자신의 글을 누군가에게 읽히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웬지 껌연쩍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 때문에 막상 글 자체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리포트 상담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바로 지금까지의 그러한 공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담이나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만난 학생들을 보면 그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포트 자체는 그러한 관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많은 경우는 글쓰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가 글쓰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상담한 학생들 중에도 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 하게 된 학생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러한 몇 가지 오해만 없었다면 훨씬 좋은 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난 학기에 읽은 리포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두 편의 리포트 역시 그러한 경우였다.

2.

첫 번째 오해는 남의 글과 자신의 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였다. T. S. 엘리엇의 시를 분석한 어느 1학년 학생의 리포트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일단 참고문헌 목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 영문학 학술지에 실린 관련 논문들뿐만 아니라 영어 논문들까지 읽은 이 학생은 아마도 지난 한 해 내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읽고 글을 쓴 학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리포트는 내용도 산만했을 뿐더러 글의 흐름도 매끄럽지 않았다. 이 학생은 대단한 ‘학구파’였지만 그러한 노력이 글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약속한 상담 시간에 찾아온 학생으로부터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담당 교수로부터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리포트”를 써오라는 과제를 받은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글을 제출했으나 담당 교수는 술한 물음표와 함께 거의 모든 구절을 반박하여 돌려주셨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학생은 글쓰기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리포트 본문을 놓고 함께 짚어 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리포트 서론에서 “이 시의 화자의 내면세계를 시어와 이미지 분석, 화자의 서술 태도 등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글의 전개 방향은 이와 달랐는데, 이에 대해 질문을 하니 학생은 가방에서 자신이 읽은 어떤 영어 논문

* 글쓰기교실 연구조교 · 독어독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을 꺼내는 것이었다. 책을 펼쳐 보여주며 이런 구절이 서론에 어울릴 법하여 번역하여 옮겨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제서야 나는 이 글이 어쩌서 산만해졌는지, 그리고 이 글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지만 정작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은 너무 짧았으며, 자신의 글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일관된 논지로 써야한다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 학생은 리포트란 무조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논문을 조합해서 쓰다 보니 담당교수가 요구했던 독창적인 글에서 처음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읽은 자료에서 부분 부분 가져와서 쓰다 보니 한 문장 한 문장은 그럴 듯해 보이나 전체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자연히 논리적인 글에서도 멀어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남의 글을 읽고 채 소화하기도 전에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글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참고 문헌의 부분 부분만 열기설기 기워놓은 형국이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학년 학생의 리포트에서 흔히 발견된다. 글의 전체 구조는 흔히 건축물에 비유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논문에서 앞뒤 맥락을 다 빼버리고 한 구절씩만을 옮겨 적는 것은 철근 하나 벽돌 하나씩 모아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그렇게 씌어진 글은 매우 부실한 글이 될 수밖에 없다.

3.

한편 학생들의 글에서는 지나치게 참고문헌에 의존하는 위와 같은 현상과 정반대의 현상도 흔히 발견되는데, 관련 참고문헌을 전혀 읽지 않고 자신의 감상만을 적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위의 학생은 처음 쓴 리포트에 대해 담당 교수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직후 또 다른 리포트 한편을 쓰게 되었다며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 리포트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앞의 리포트에서처럼 채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통속적인 미국 TV 드라마 대사나 자신의 감상 등 리포트에 적합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벼운 내용이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쓴 리포트가 혹평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참고문헌을 전혀 읽지 않고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두 편의 글은 한 학생이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판이하게 달랐는데, 전자가 너무 현학적이고 무거운 글이 되었다면 후자는 지나치게 가벼워져 버렸던 것이다. 학생들의 글에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동시에 발견된다는 점에서 남의 글과 자신의 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글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버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4.

학생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리포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결론에 대한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논리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대신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현상은 되도록 ‘안전한’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위해 읽은 리포트 중에서 아쉬웠던 또 하나의 글이 바로 이러한 경우였다. 소포클레스의 『외디푸

스 왕』, 셰익스피어의 『햄릿』, 입센의 『유령』, 세 희곡에 나타나는 진실의 발견 과정을 비교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라는 과제를 받은 한 학생은 상당히 치밀하게 세 작품을 분석하여 글을 썼지만 결론만은 예외였다. 작품의 구조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며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간 본론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지만 결론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 학생은 결론 부분에서 그때까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차이점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가 없어도 성립할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결론이었다. 따라서 진실이 드러나는 이들 작품은 모두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세 작품의 창작 시기의 격차만큼 각각의 작품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도 달랐지만, 결론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셈이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는 결론은 본론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분석을 무화시키고 논의 자체를 진부하게 만들어 버릴 소지가 있다. 자신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보편타당한 이야기로 글을 끝내는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이 글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의 글에서 발견된다.

5.

앞서 언급한 글에 대한 두 가지 특수한 오해 외에 상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글의 문제점은 생각과 표현의 불일치이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글로부터 거리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글을 독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신의 머리 속에만 있고 글에는 미처 표현되지 못한 내용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글을 읽어본다면 줄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 비약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글쓰기교실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함께 한다. 실제로 상담 시간 전에 학생들의 글을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직접 만나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 그건 이리이러해서 그렇게 쓴 것인데요”라며 잘 설명한다. 글쓰기교실의 리포트 상담실은 글을 평가내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글에서 취약한 점을 찾아내도록 돕는 곳이다. 또 상담이라고 하면 으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쓰기 상담 역시 문제투성이 글에만 해당된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글쓰기 상담에서는 자신의 글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장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실제 상담 중에는 학부생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훌륭한 글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리포트들은 우수 리포트로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한다.

세미나에서 리포트를 제출하면 언제나 고쳐 주시고 마지막에 몇 줄 코멘트를 해서 돌려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다. 돌려받은 글에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성한 부분에 가차 없이 ‘비약!’이라고 써 있었으며, 설명이 부족하고 모호하게 진술된 부분에는 어김 없이 물음표가 있었다. 그런 경험이 이후로도 커다란 자극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글쓰기교실은 그러한 과정을 이미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은 선배들과 함께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실제 리포트 상담 시 상담 조교들은 주제, 글의 구성과 논지 전개, 문장 및 표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글을 검토하고 상담을 한다. 지금 잡은 주제가 적절한지, 전체 목차는 균형 잡혀 있는지, 글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비약은 없는지, 글의 흐름이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표

현상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상담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은 무엇보다 글 전체 구성상의 문제점이나 전개상의 논리적인 모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완성된 글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보다는 글을 쓰는 중간 과정, 즉 주제를 잡거나 목차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타인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의 논지가 명확해지고 목차도 더 균형 잡힐 수 있다면 실제 집필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리포트 상담은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되어, 상담 받을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글쓰기교실로 직접 찾아와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면담 방식 외에 온라인 상담도 도입되어 학생들이 제약 없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상담 조교 중에서 자신이 쓴 글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글쓰기교실이 더 많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쓴 리포트를 가지고 글쓰기교실 연구조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